한국청소년연구 제18호 1994 가을

청소년연구의 스포츠 사회학적 접근

구 창 모*

Ⅰ. 머리말
Ⅱ. 스포츠사회학 연구영역별 청소년연구의 동향
Ⅲ. 스포츠 사회학내의 청소년연구 발전방향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연구에 대한 학문적 체계나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적 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청소년학'을 제대로 전공한 전문가가 매우 적은 관계로 전반적인 청소년연구의 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체육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즉 스포츠의 미래와 발전 여부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스포츠에서의 청소년의 역할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나 청소년 분야에서의 스포츠에 관한 연구 수준은 둘 모두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역학, 스포츠 의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연구 대상의 상당수가 청소년층의 연령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특수한 운동선수 집단을 대상으로 운동수행력 등의 자연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결과를 단지 연구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연구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영역과 관련된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교육학, 사회체육분야 등에서 이루지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의 주요 쟁점인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도 청소년 연구가 아직 확실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채, 청소년 비행 연구와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한정된 주제들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인 논의 과정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중에 단순히 대상만을 청소년으로 삼은 연구들까지도 청소년연구에 부분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스포츠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Levy(1952)는 아동기의 경쟁적 스포츠 참가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Lever(1976)는 청소년기의 스포츠 경험은 대인경쟁, 리더쉽, 사회적응력 등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 기능을 학습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Spady(1971)는 과외자율체육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신분과 지위를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 성공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과정에서 하나의 자원으로서 봉사하는 기술과 태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제안하였다.

Dubois(1986)는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참가하면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운동기술 향상, 페어플레이, 흥미, 스포츠맨쉽, 체력증진, 팀의 성원 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조직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기술이나 자기확신, 동료와의 동등의식, 집단생활 및 전략적 사고, 협동심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가치들을 학습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Coakley(1986) 역시 조직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혹은 다양한 덕목과 가치의 학습 수단으로 간주되고는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하게 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Coakley(1981)는 청소년들의 조직 스포츠 참여에 따른 역기능적 요소로 지나친 경쟁심, 일의 성격으로의 변화, 재미없는 프로그램, 스포츠 지도자의 냉소적인 태도 등을 열거한 바 있으며, Leonard(1988)는 조직적인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승패에 대한 강조, 제거(cutting)의 문제, 어른들의 간섭, 지나친 기대에 따른 심리적인 상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McPherson, Curties and Loy(1989) 등은 경쟁적이고 조직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요받는 어린 선수들은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접촉은 뒤로 한채 오직 스포츠와 관련된 상황만이 주 관심사가 됨으로써 첫째, 보통의 일반 청소년들과 같아 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둘째, 경쟁으로 부터 이탈하려고 할 때 어른들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셋째,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잃게 되며 넷째, 과도한 심리생리적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으며 다섯째, 지적인 발달과 성장에 장애를 받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관련된 많은 청소년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전제로 하여, 스포츠는 청소년에게 확실한 잠재적 가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습득한 기술이 청소년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며, 또한 스포츠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주장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신뢰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의 해답은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학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기술하고 구성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의 접근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사회학적 개념과 방법을 통하여 스포츠 현상을 분석 및 설명하려는 스포츠 사회학내에서의 청소년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사회학내의 연구 영역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사회학 이론편을 비롯하여 스포츠와 사회제도, 스포츠와 사회과정, 스포츠와 사회조직, 스포츠와 사회문제 등으로 분류한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 사회학 연구 영역 중 청소년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교육, 사회화, 사회계층, 사회집단, 여성, 사회일탈 분야 등에서 발표된 국내외 논문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이에 따른 차후 스포츠 사회학내의 청소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스포츠사회학 연구영역별 청소년 연구의 동향

1.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정치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정치태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다. Norton(197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와의 정치태도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시민으로서의 자유침해나 사회불안의 수용에 대하여 더 관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정치사회화와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는 Rehberg와 Cohen(1976)의 연구는 남자 대학생 937명을 대상으로 정치 권위에 대한 수용, 미국사회에 대한 의견, 군 징집에 대한 시민의 의무, 정치참여, 사회변화에 대한 국민의 역할 등에 대한 정치태도를 양적 분석한 결과 스포츠의 다양한 사회화 경험을 한 운동선수집단이 그렇지 않은 비운동선수집단 보다 사회변화에 보수적이고, 정치권위나 사회현상 및 시민의무에 보다 긍정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itzen과 Sage(1978)는 운동선수가 일반학생에 비해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이유에 대하여, 1)운동선수가 사회에서 특혜를 받는 점, 2)운동생활에 전념함으로써 사회비판의 기회를 적게 갖는 점, 3)운동선수는 지도자나 행정당국의 권위를 수용하는 데 익숙해 있는 점, 4)스포츠 세계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임번장 등(1987A)은 사회체육 지도자 연수교육에 참가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포츠 참가와 정치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신뢰감 및 정치효능감과 같은 정치태도가 보수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임번장 등(1987B)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포츠 참여가 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분석적 연구에서 운동선수가 일반학생에 비하여 스포츠의 사회화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태도 또한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범식(1988) 역시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일체감,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태도를 분석한 결과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교육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주로 스포츠와 교육포부, 교육기대, 학업성취 등에 관

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Schafer와 Armer (1968)는 고등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운동선수의 성적과 교육포부가 일반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발견한 바 있으며, Rehberg와 Schafer(1968)역시 고등학생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교육포부 형성에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Hanks와 Eckland(1976)의 연구에서도 스포츠와 교육포부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Snyder와 Spreitzer(197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Otto(1982)는 그의 종단적 연구 결과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IQ, 학교수준, 교육 및 직업적 포부 등을 통제했을 경우 스포츠 참여는 15년 후의 교육적 성취, 직업적 신분, 수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Snyder와 Spreitzer(1990)에 의하면 스포츠 참여는 학문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다음의 6가지 사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1) 학문적인 열망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관심의 증대
2) 스포츠 참여 적임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학문에 매진
3) 학문적 성취와 관련된 자아개념의 변화
4) 코치, 교사, 부모로 부터의 관심 증대
5) 학문적 성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엘리트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기대
6) 대학 스포츠 참여의 가능성

또한 Finn(1989)은 과외자율체육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의 일체감을 갖도록 해주며, 이러한 일체감은 학업에 관한 자아개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Spady (1970)는 스포츠와 같은 과외활동에의 참가가 남자 고등학생들의 교육포부 형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였으나, 대학을 스포츠 경력의 확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운동선수에게 스포츠는 교육포부 형성의 의미있는 기제가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두 변인간의 정적인 관계를 부정하였다. 다시 말해 단순히 스포츠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포부가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다른 과외활동과 마찬가지로 그 참가자의 지위를 상승시킬 경우, 이 상승된 지위를 동료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운동선수가 졸업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포부가 상승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Rehberg와 Cohen(1975)의 연구에서도 학업에 별 관심이 없고 스포츠에만 전념하는 운동선수는 학업에 열중하는 운동선수에 비해 교육포부가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여, 스포츠 만으로의 집중은 교육포부와 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업성취가 저조한 운동선수의 경우 스포츠를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적 도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업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Lueptow & Kayser, 1973)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강신욱(1990)은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를 비교한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그 귀결이 명백히 예측된다고 전제하면서 운동선수 집단내에 학업성취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교육 투입요인이 교사-학생 상호작용이나 학교풍토 인지와 같은 교육과정 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스포츠 참가와 교육포부의 관계에 관

한 연구(1992)에서 운동선수의 학업 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하여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가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받아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스포츠와 사회화

스포츠와 사회화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스포츠에로의 사회화에 해당되는 스포츠 참여의 요인과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등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스포츠 참여의 요인과 관련된 연구중 Kenyon (1977)은 국민학교 시절 스포츠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운동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면서, 그는 올림픽 육상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국민학교 시절에 스포츠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Yamaguchi(1984)는 아동기의 스포츠 참여 경험이 청소년기의 일차적·이차적 스포츠 참여 및 인지적·정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와 관련된 연구로서 Watson(1977)은 가족생활에서 어린이들의 스포츠가 갖는 기능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화 기능과 노력은 일반적으로 약세에 있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위는 실추되었다 하여도 가정은 아직도 자식의 사회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Sofranko와 Nolan(1972)에 의하면 역시 아동기에 가족집단 내에서 스포츠 역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경험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onard(1980)는 어린이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부터는 동료집단이 사회화의 주관자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사춘기에 있어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러한 영향은 사회계층, 가족내의 친족관계, 사춘기 혹은 10대의 하위문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데,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나 문화전통에 따라 동료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비중과 영향은 다르지만 청소년 시기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자의식을 친구집단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향은 더욱 커지며, 또한 현대사회의 사회적 구조가 변하여 핵가족화됨으로써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이 담당하는 역할은 축소되는데 비하여 동료집단의 사회화 기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Eisentadt(1962)는 동료집단이 사회화 기관중 가장 중요한 유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nyder와 Spreitzer(1970) 역시 유년기와 청소년 초기에 동료집단의 영향은 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는 남자 친구들 보다 여자 친구들로 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Mantel과 Vander Velden(1974), Smith(1978)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기능과 승리를 강조하는 전문지향적 성향이 높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Bailey(1977)는 유희와 게임 역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있어서 사회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어린이로

하여금 인지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협동적이고 경쟁적인 장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성적 역할을 학습하게 하여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포츠 사회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임번장(1986), 임번장 외(1986)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포츠에로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경로분석적 연구에서 부모, 동료, 교사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 및 권유가 초기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가 성장기 청소년에게 성취사회에 지배적 가치이념을 제공하여 주는 문화주입에 기여함으로써 성인기에 성취사회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여 주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조직적이고 복합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수록 다수의 사회성원에 의하여 수용된다고 여겨지는 규범적 태도,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 본류의 가치성향으로 주조되어 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스포츠와 사회계층

스포츠와 사회계층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는 주로 부모의 사회계층적 배경에 따른 자녀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Luschen(1969)은 스포츠 참여와 관람의 사회계층별 차이와 관련하여 서독의 15~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서로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owell과 Miracle 그리고 Rees(1984)는 1966년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던 1,628명을 대상으로 8년 후의 교육 및 직업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대내 스포츠에 참가한 사람이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비참가자 보다 교육적 열망이 더 높은 반면 직업, 연봉, 시간, 수당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UCLA의 대학대표팀 선수를 대상으로한 Loy(1969)의 연구에서 골퍼는 대부분 상류계층 출신이고 레슬러는 하류계층 출신임을 밝혀낸 바 있으며, 특히 테니스, 수영, 보우트 및 펜싱은 상류계층을 야구, 축구, 복싱은 하류계층을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Kelly(1970)는 고등학교 선수들에 대한 연구에서 상류층보다 하류층 선수들이 주로 팀스포츠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Hasbrook(1986)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계층의 배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스포츠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여자들의 경우에는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상류계층의 청소년들에 비해 스포츠 참여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종합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청소년들의 스포츠참여와 그들의 사회계층간의 관계는 점점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사회계층과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박진경 외(1988)가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직업 위광적 배경이 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이 결과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에 속하는 학생이 기능직 종사자 배경을 지닌 학생에 비하여 일차적 스포츠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김성영(198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계층적 배경에 따른 선호 스포츠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하류계층으로 갈수록 참여 스포츠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관람 스포츠 선호도는 사회계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번장 외(1983)의 우리나라 우수선수의 출신계층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으로 나누어 일반국민과 국내 우수선수의 계층구조를 비교하여 본 결과, 비농업부문의 경우 우수선수의 사회계층적 배경은 중간층, 중하층에서 일반국민의 계층구조와 비슷한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층은 약간 낮은 비율이고 하층에서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부문에서는 지주층에서 우수선수 출신계층 구성 비율이 일반국민 계층 구성비율보다 상당히 높으며, 중·소농층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소작층에서는 약간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스포츠와 사회집단

스포츠와 사회집단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집단응집력과 팀 수행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나 특정 스포츠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등이 있다.

집단응집력과 팀 수행력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 결과로는 대학 농구팀을 대상으로 매 경기전 성원의 상호 애착도와 경기 성적을 비교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Klein과 Christiansen (1969)의 연구와 ROTC 사격팀을 대상으로 성원의 상호 수용도와 팀 성공 수준이 상호 관련이 있다고 밝힌 Myers(1962)의 연구가 있다. 또한 Velden(1971)의 연구 결과 역시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팀 승률과 득점차가 집단응집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Martens와 Peterson (1971)도 대학 농구팀을 대상으로 시즌 전과 시즌 후의 집단응집력을 측정하여 경기 결과와 비교한 결과 집단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승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Arnold와 Straub(1972)도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팀 성공률이 높은 팀이 낮은 팀보다 집단응집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Landers와 Crum이 1971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도 팀 성공은 성원의 친밀도와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팀의 집단응집력과 경기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Fiedler(1954)는 고교 농구팀을 대상으로 팀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도와 대인관계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승률과 친밀도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Landers와 Luschen (1974)도 대학 볼링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팀 성적과 집단응집력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특정 스포츠 집단 구성원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로는 출생서열과 위험스포츠 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Nisbett(1968)는 남자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장자는 차자에 비해 미식축구, 럭비와 같은 위험스포츠에 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고, Yiannakis(1976)는 대학생인 장자 67명과 차자 99명을 표집하여 출생서열에 따른 위험스포츠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신체상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높고 스트레스하에서 의탁의 기회가 낮은 스포츠를 장자는 회피하려는 한다는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한규(1992)가 남자 고등학교 선수와 대학 선수를 대상으로한 스포츠 집단의 구조적인 요인과 집단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 집단의 지도자 행동 유형과 집단응집력은 성원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팀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 바 있으며, 채관석(1992)은 그의 연구에서 팀내의 리더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팀성원들이 높은 합의를 보이는 팀이 낮은 합의를 보이는 팀에 비해 승률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강신욱(1986)은 남자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출생서열과 위험스포츠 참여에 관한 논문에서 장자와 차자간의 위험스포츠 참여도는 위험수준과 스포츠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자는 차자에 비해 스포츠의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6. 스포츠와 여성

스포츠와 여성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와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여성스포츠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여자 운동선수의 역할갈등의 본질을 분석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로서 Sage와 Laudermilk(197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여성과 운동선수 역할 사이의 불일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Grace(1972)가 개발한 도구를 개정한 다음 미국내 13개 대학 268명의 대학 여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인지적, 경험적 역할갈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0%가 역할갈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20%는 '매우 크게', 혹은 '크게'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Anthrop와 Allison(1983)은 참가자의 연령이 인지적, 경험적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Sage와 Laudermilk(1979)의 연구를 재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가 대학 여자 운동선수에 비하여 역할갈등의 인식수준 및 경험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Desertrain과 Weiss(1988)는 106명의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역할갈등, 성역할 지향 그리고 여성의 스포츠 참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운동선수가 일반학생에 비하여 인지적, 경험적 역할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여성 스포츠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전국 대학선수권에 참가한 여성선수와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Snyder와 Kivlin(197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게 바람직한 스포츠는 수영, 테니스, 체조, 소프트볼, 농구, 육상 등이라 하였으며, 또한 Snyder와 Spreitzer(1977)는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농구와 육상선수보다는 체조선수가 더 큰 담력이 길러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신혜(1991)는 서울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 여자 운동선수 209명을 대상으로 여자 운동선수의 역할갈등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용인된 스포츠 종목에 참가한 여자 운동선수가 그렇지 않은 선수에 비하여 사교활동에 대한 인지적 역할갈등이 높은 반면 운동수행에 대한 경험적 역할갈등은 낮으며, 대인종목의 여자선수가 개인, 단체종목의 여자선수에 비하여 사교활동에 대한 역할갈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공 강박 및 정서에 대한 경험적 역할갈등 또한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번장(1993)은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자체도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에 남학생에게는 축구, 농구, 배구, 태권도, 씨름 등과 같이 공격적이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반면, 여학생에게는 체조, 에어로빅 댄스, 무용 등과 같이 율동적이고 미적 성향을 강조하는 종목을 주로 학습시킴으로써 묵시적으로 기존의 성역할 정체를 정형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7. 스포츠와 사회일탈

스포츠와 사회일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연구영역은 약물복용, 폭력, 부정행위, 역할갈등 등이 있으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청소년비행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만 살펴 보고자 한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참가가 비행을 통제할 수 있고, 일탈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Segrave(1980)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운동경기 참가자 및 남녀 운동선수에게 비행에 관한 자기보고 질문문항을 분석한 결과 비행행동에 응답한 운동선수의 비율이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1983년의 연구에서도 또한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비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Burhman과 Bratton(1978)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중 2가지 이상의 스포츠에 참여한 여학생이 단지 한 종목에서 경기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에 비하여 법정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egrave와 Hastad(1984)는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운동경기 참가와 비행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운동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하여 비행행동이 적은 것으로, 또한 운동경기가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메카니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Johnson(1979)에 의하면 대학 운동선수들에 의한 비행유형은 음주운전, 마약복용, 여자희롱, 주거침입, 절도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스포츠 참가가 오히려 청소년비행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Yiannakis(1980)는 스포츠 활동과 비행 사이에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스포츠 환경은 비행전의 청소년이나 비행성향이 있는 청소년에게 아무런 의미나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Landers와 Landers(1977)의 주장에 의하면 운동선수와 다른 유형의 과외활동 참여자간의 비행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Needleman과 Needleman(1979)은 스포츠는 비행을 억제하거나 조장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영린(1986)은 스포츠 참가와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에 규칙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이 비참가자에 비하여 가정생활 비행, 학교생활 비행, 사회생활 비행이 낮다고 보고함으로써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비행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으며, 김관훈(1988)은 운동선수의 비행요인에 관한 경로분석적 연구에서 운동경기 참가경험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직적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하여 청소년비행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창모(1991)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도가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낮으며, 특히 자아개념, 비행접촉, 비행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Ⅲ. 스포츠 사회학내의 청소년연구 발전 방향

1. 이론적 틀에 기초한 연구방향의 설정

어느 학문 분야이건 연구의 시작은 하나의 관점으로 부터 출발한다. 그 관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넓은 의미에서의 이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론의 구성 *theory building*은 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체계적 견해를 나타내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구성개념 및 명제(Kerlinger, 1965)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첫째, 철학적 기초나 관점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사용하는 전망 *perspectives*, 접근법 *approaches*, 패러다임 *paradigms* 등이 있으며 둘째, 주로 이론의 형식과 관련된 표현법으로 준거틀 *conceptual scheme*, 개념의 틀 *framework*, 상징의 얼개 *symbol structure*, 명제들의 묶음 *sets of propositions* 셋째, 이론이 담는 내용을 두고 규정한 결과로 학설, 교조,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김경동, 1983).

한편 청소년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학의 정립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청소년연구를 위한 독자적인 이론적 틀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개별적인 연구 영역에 따른 관련 학문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사회학내에서의 청소년연구 역시 스포츠 사회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에 준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사회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대부분 사회학과 관련된 이론들로서 이는 스포츠 사회학의 지식의 본질이 다분히 사회학적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사회학적 주요 패러다임은 기능-체계 패러다임 *functional-systematic paradigm*, 폭로 패러다임 *muckraking or dirty paradigm*, 인간주의-실존 패러다임 *humanist-existential paradigm* 등이며, 관련 이론으로는 구조기능주의이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비판이론 등이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번장의 스포츠사회학개론 pp.49~83을 참조할 것).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사회학적 주요 이론에도 불구하고 비단 청소년연구만이 아닌 스포츠 사회학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이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현상 설명의 기술에 입각한 서술적이고, 비이론적이며, 단편적인 이론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스포츠 사회학의 모든 이론이 스포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중요성은 어떠한 현상을 얼마 만큼 본질에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하고 논리적인 이론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안민석(1993)은 스포츠 사회학의 각각의 이론적 관점은 서로 다른 질문을 요구하고, 고유한 전제와 정보를 획득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며, 사회현실의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개념들은 지식의 발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사회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제반 문제를 규명함과 동시에 스포츠와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틀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물론 기존의 이론에 입각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

이다.

2.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모색

사회학자들은 사회에 관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양적인 조사를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새로운 과학관에 의해 양적 연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총체적 접근 *holistic approach*을 강조하면서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질적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아 이론이나 연구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비교적 부진한 스포츠 사회학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포츠 사회학 연구의 발달단계인 태동단계(the normal stage, 1951~1964), 교류단계(the network stage, 1965~1972), 응집단계(the cluster stage, 1973~1978), 전문화단계(the speciality stage, 1979~)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스포츠 사회학내에서도 질적 연구의 논문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스포츠 사회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은 설문조사 중심의 양적 조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연구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표피적인 현상이나 결과보다는, 그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숨겨진 메카니즘과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연구에 있어서의 질적 연구는 더욱 의미를 갖는다. 더우기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비해 비통제적 관찰과 비구조적 면접이 가능하고, 탐색적·귀납적이며, 발견과 과정중심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연구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철학적 배경은 현상학적 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심층면접*depth interview*, 관련자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생애사 기법*life-history method*, 참여자 관찰 또는 현지조사*participant observation or field survey* 및 사례연구*case study*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질적 연구의 기법들 만이 청소년연구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질적 연구 역시 나름대로의 한계와 단점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요구,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연구결과의 주관성, 변인 통제의 어려움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청소년연구와 관련하여 실증주의적 경향을 갖는 양적 조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어 양적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사회학내에서의 바람직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보완하여 각 연구방법이 갖고 있는 서로의 단점을 최소화시켜 주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접근을 가능케 하는 '삼각법'*triangulation*이 유용할 것이다. 이 삼각법은 양적 연구에서 질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질적 연구에서 양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혹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처음부터 동시에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상황과 관련하여 청소년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 될 경우에는 자연주의적 질적 연구가 매우 효과

적인 대안적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화 연구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의 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하다.

3. 인접학문의 이해

Ziegler(1979)에 의하면 스포츠과학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련학문과 영역간에 미분화의 상태에서 점점 분화하는 상태로 변화를 거듭하였으며, 이제는 지나친 분화의 결과로 모든 스포츠과학 하위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지식의 본체를 상실함으로써 스포츠과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학문적 발전 방향으로 인접학문간의 공동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와 관련 하위학문간의 공동연구 *cross-disciplinary approach*로서 통합된 지식의 본체를 바탕으로 각기 독특한 측면의 고유연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학문의 이해와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스포츠학계에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다.

스포츠과학은 '스포츠'라는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자연과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 모두에 관련을 맺고 있는 종합과학의 성격을 지닌 응용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과학분야에 속하는 영역으로, 사회구조와 사회과정을 연구하는 사회학(사회화, 사회계층, 스포츠집단 및 조직, 사회일탈, 스포츠와 집합행동 등)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학(학교교육, 학원스포츠, 교육제도,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등), 정치학(정치분화, 정치사회화, 국제스포츠, 올림픽경기 등), 경제학(상업주의와 스포츠, 프로스포츠 등), 종교학, 신문방송학, 여성학 등 타 학문과의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학문이다.

한편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청소년학은 학문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이르러서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영역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학 역시 사회학(청소년의 가치관, 청소년 비행 등), 교육학(청소년 교육의 방향, 청소년문화 등), 심리학(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정 등) 등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정신의학, 신문방송학, 보건학, 체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청소년학은 청소년연구를 어느 단일 분야들 만의 편중된 연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여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충옥, 1991).

이처럼 스포츠 사회학 및 청소년학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내용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볼 때 스포츠 사회학내에서의 청소년연구는 얼마나 많은 학문과의 상호교류를 필요로 하는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상호교류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학문의 이론이나 연구방법을 빌려오는 것 이상의 전문화된 지식의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배경과 충분한 연구 경험이 없는 어설픈 상태에서 스포츠 상황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을 막연히 청소년으로 삼은 연구가 아닌, 비록 연구자에게 새로운 학문 영역일지라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분야라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연구에 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특정 스포츠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혹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이나 면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관찰 및 민속지 *ethnography*연구에 대한 조사방법 자체의 지식은 물론 인류학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

적 배경없이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전문성도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론 주변 관련 학문과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화에 대한 종합적 학문의 분석과 탐구를 통한 지식의 습득은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청소년연구의 전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상황과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는 모든 청소년연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4. 운동선수 외에 학생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

체육학내에서의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 대상중 상당수가 운동선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사회학 영역에서도 나타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운동선수 집단과 비운동선수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스포츠 사회학을 비롯하여 체육학 분야에서 연구 대상을 운동선수로 삼으려 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또한 학문적 과제로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법적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1,360만명에 달하고, 그중 운동선수가 74,311명('93년도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국·중·고·대학교 운동선수의 총 학생수)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에 대한 비율이 0.55%에 해당되며, 이외에 실업선수나 프로선수 중 청소년 연령층에 속하는 모든 선수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체 비율이 1%를 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운동선수가 차지하는 비율만을 놓고 볼 때에는 청소년연구의 총체적 측면에서 운동선수 연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조직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에의 학생 및 일반청소년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운동선수 외에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 스포츠 현장에서 뿐 아니라 학문적 측면에서의 연구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연구로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스포츠 참여의 결정요인과 장애요인,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스포츠 참가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나 정신건강에 관한 논의 등 여러 주제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청소년 스포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스포츠 사회학 뿐 아니라 체육학내에서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덜 중요하거나 학문적 가치가 적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운동선수 이외의 학생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동안 스포츠 사회학 분야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 주제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의미를 갖고자 한다. 이는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 역시 체육이나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스포츠 사회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연구의 동향을 국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동향 및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청소년연구의 방향으로 이론적 패러다임의 문제, 방법론적 문제, 인접학문의 문제, 연구대상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포츠 사회학에서의 청소년연구의 수준은 양적으로도 미흡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평가 혹은 새로운 이론 정립 및 이론의 과학적 검증에 대한 논의 등의 접근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청소년체육은 최근에 이르러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실체로서의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연구와 관련하여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청소년체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점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체육분야를 비롯한 여러 학문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와 논의가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체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역사가 미천하고 체계적인 연구 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포츠 사회학을 포함한 체육학내에서의 청소년연구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적 노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강신욱. 1986. "출생서열이 위험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89. "중고등학교에서의 스포츠와 사회적 지위",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제10권 제1호.

_____. 1990. "운동선수의 학업성취 격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제11권 제2호.

_____. 1992. "스포츠 참가와 교육포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창모. 1985.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동. 1983. 사회학 이론의 메타 이론적 쟁점, 「현대사회학의 쟁점」, 법문사.

김관훈. 1988. "운동경기 참가와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범식. 1988. "스포츠를 통한 정치사회화가 국민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영. 1989. "대학생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스포츠 참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경 외. 1988. "직업위광적 배경의 효과와 스포츠 참여", 서울 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안민석. 1993.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과 문제",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 학술대회,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

이신혜. 1991. "여자 운동선수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규. 1992. "스포츠 집단의 구조적 요인과 집단효율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번장 외. 1983. "우리나라 우수선수의 출신계층에 관한 조사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논집, 제3권 제1호.

_____ 외. 1986. "청소년의 스포츠 사회화 과정에 대한 경로분석적 연구", 연구논총, 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_____ 외. 1987 A. "스포츠 참가가 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25회 한국체육학회 하계세미나 발표 논문.

_____ 외. 1987 B. "스포츠 참가와 정치태도의 관계에 관한 경로분석적 연구", 연구논총, '88 서울 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_____. 1993. 「스포츠 사회학 개론」, 서울 : 동화문화사.

채관석. 1992. "스포츠 집단의 사회적 구조가 팀 성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충옥. 1991. "청소년학의 정립을 위한 시론", 청소년학대회, 한국청소년학회.

황창순. 1992. "청소년문화와 질적 연구방법론",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4호, 한국청소년연구원.

Anthrop, J., & Allison, M. 1983. Role conflict and the elite female atlete : Empirical findings and conceptual dilemmas, *IRSS, 19*.

Arnold, G. E., & Straub, W. F. 1972. Personality and group cohesivenes as determinants of success among interscholastic basketball teams, Ottawa : *Fitness and Amateur Sport Directorate*,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Bailey, I. C. 1977. Socialization in play, games and sport, *Physical Education*, 34(4).

Burhman, H. G., & Bratton, R. D. 1978. Athletic participation and deviant behavior of highschool girls in Alberta, *Review of Sport and Leisure*, 3.

Coakley, J. J. 1981. Play, game and sport :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young people,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 4.

_____. 1986. Organized sport programs for children, *Sport in Society* : Issues and controversies, Times Mirror / Mosby College Publishing.

Desertrain, G., & Weiss, M. 1988. Being female and athletic : A cause for conflict? *Sex Roles*, 18.

Dubois, P. E. 1986.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port on the value orientations of young athlet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Vol 3.

Eisenstadt, S. N. 1962. *The political system of empires*, New York : The Free.

Eitzen, D. S., & Sage, G. H. 1978. *Sociology of American sport*, Dubuque, IW : Wm. C.

Brown.

Fiedler, F. E. 1954. Assumed similarity measures as predictors of team effectiveness, *JASP*, 49.

Finn, J. D. 1989. Withdrawing from school,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9.

Grace, G. 1972. *Role conflict and the teacher*,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Hanks, M. & Eckland, B. K. 1976. Athletic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49.

Hasbrook, C. A. 1986. *The sport participation-social class relationship* : Some recent youth sport participation data.

Howell, F., Miracle, A., & Rees, R. 1984. Do highschool athletics pay?, he effects of varsity participation on socioeconomic attainment, *Sociology of Sport Journal*, 1. 1).

Johnson, J. A. 1979. Changes in self-concepts during a physical development program, *Research Quarterly*, 39.

Kelly, C. 1970. *Socialization into sport among male adolescents from Canada*,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Kenyon, G. S. 1977. The use of path analsis in sport sociology, *IRSS*, 5.

Kerlinger, F. N. 1965.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Klein, M., & Christiansen, G. 1969. Group composition, group structure and group effectiviness of basketball teams, In J. W. Loy & G. S.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 MaCmillan.

Landers, D. M., & Crum, T. 1971. The effects of team success and formal structure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hesiveness on baseball teams, *IJSP*, 2.

Landers, D. M., & Landers, D. M. 1977. Socialization via interscholastic athletics : its effect on delinquency, *Sociology of Education*, 51.

Landers, D. M., & Luschen, G. 1974. Team performance outcome and cohesiveness of competitive co-acting groups, *IRSS*, 9.

Leonard, W. M. 1980.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eapolis, MN : Burgess Publishing Company.

_____. 1988. Organized youth sport program, *As socia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New York.

Lever, J. 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loblems*, 23.

Levy, M. J. 1952. *The structure of societ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Loy, J. W. 1969. The study of sport and social mobility, In G. S. Kenyon(Ed.), *Aspects of contemporary sport sociology*, Chicago : The Athletic Institute.

Lueptow, L. B., & Kayser, B. D. 1973. Athletic involvement : academic achievement and aspiration, *Sociological Focus*, 7.

Luschen, G. 1969. Social stratification and so-

cial mobility among young sportsman, In J. W. Loy and G. S.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 MaCmillian.

Mantel, R. C., & Vander Velden, L. 197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 toward play of preadolscent boys and participation in organized sport, In G. Sage,(Ed.), *Sport and American Society*, Reading, MA : Addsion-Wesley.

Martens, R., & Peterson, J. 1971. Group cohesiveness as a determinant of success and member satisfaction in team performance, *Research Quarterly*, 41.

McPherson, B. D., Curties, J. E., & Loy, J. W. 1989.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Books.

Myers, A. E. 1962. Team competition, success and the adjustment of group memb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5.

Nisbett, R. E. 1968. Birth order and participation in dangerous sports, *JPSP*, 8.

Norton, D. J. 1971. *A comparison of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athletes and non-athle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Oregon.

Otto, L. B. 1982. *Extracurricula activities*, In H. J. Walberg(Ed), Improving educational standards and productivity, Berkeley, CA : McCuthan.

Rehberg, R. A., & Cohen, M. 1975. Athletes and scholas : an analysis of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and image of two youth culture categories, *IRSS*, 10.

Rehberg, R. A., & Cohen, M. 1976. Political attitude and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 activities, In D. M. Landers(Ed.), *Social ploblems in athletics*,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Rehberg, R. A., & Schafer, W. E. 1968. Participation in highschool interscholastic sports : a speculative consideration, *Adolescence*, 4.

Sage, G. H., & Loudermilk, S. 1979. The female athlete and role conflict. *Research Quarterly*, 50.

Schafer, W. E., & Armer, M. 1968. Athletes are not inferior students, *Transaction*, 5.

Segrave, J. O. 1980. Delinquency and athletes : Review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_____. 1983. Sport and juvenile delinquency,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 11.

Segrave, J. O., & Hastard, K. 1984. Delinquent behavior and interscholastic athletic participation, *Journal of Sport Behavior*, 5.

Smith, M. 1978. *Getting involved in sport : Sex difference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hysical Activity Sciences, Quebec.

Snyder, E. E., & Kivlin, J. E. 1975. Women athletes and asp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body image, *Research*

Quarterly, 46.

Snyder, E. E., & Spreitzer, E. 1970. Family influence and involvement in sport, *Research Quarterly*, 49.

_____. 1977. Participation in sport as related to educational expectation among highschool girls, *Sociology of Education*, 50.

_____. 1990. High school athletic participation as related to college attendance among Black, Hispanic, and White males : A research note, *Youth and Society*, 21.

Sofranco, A., & Nolan, M. 1972. Early life experiences and adult sports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

Spady, E. E. 1970. Lament for the letterman : effects of peer statu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goals and achie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5.

_____. 1971. Status, achievement, and motivation in the American high school, *School Review*, 79.

Vander Velden, L. 1971. *Relationships among member, team and situational variables and basketball team success* : A social psychological inqui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Watson, G. 1977. Games, socialization and parental values : Social class difference in parental evaluation of little league baseball, *IRSS*, 12.

Yamaguchi, Y. 1984. A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 socialization into sport : The case of Japan and Canada, *IRSS*, 19.

Yiannakis, A. 1976. Birth order and preference for dangerous sports among males, *Research Quarterly*, 47.

_____. 1980. Sport and deviance : A review and reappraisal, *Motor Skill*, 4.

Ziegler, E. F. 1979. Past,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The Academy Paper, *Monograph 13* : 9~19, The American Academy of Physical Education.